



연변, 도시건설 추진해 행복의 새 그림 그린다



연길시 도시 일각(자료사진) / 조명철

한 도시의 품격은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후주택단지 개조로부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까지, 잔디가 깔린 도시공원에서 새소리 울리고 가두와 사회구역에 꽃향기 풍기기가... 연변 대지는 생태 바탕색이 갈수록 짙어지고 경제 발전의 내생 동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한 한복의 아름다운 그림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민생실사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도시 주거환경과 인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길목화미화'와 도시 갱신 행동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민생을 보장하고 봉사하는 데로부터 착수하여 시정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힘써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여 더욱 많은 인민대중들이 전 주 도시건설 발전 성과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

많은 하늘 아래 푸른 물결 출렁이고 산들바람에 잔잔한 물결이 이는 연길 부르타통하 강변을 거니노라면 소형 공원에서 아침 단련을 하는 시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 도시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는 연길 부르타통하 강변의 '어머니강'으로 불린다. '연길목화미화' 행동이 전개된 이래 연길시는 부르타통하(1단계) 복수장방(长廊) 프로젝트, 연길행복하천수 프로젝트, 연동교-계동철교 구간 량안의

제방 보강과 복화 등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하천수역 및 완충지대의 생태 기능이 점차 회복되게 했다. 현재, 부르타통하 강변을 찾아 도시의 내은싸인과 음악분수를 구경하고 연길 강변에서 물놀이와 산책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이미 연길 시민들의 일상의 필수 코스로 되었다.

연변에서는 '목화미화'를 추진하는 행동에서 도시건설의 체계성과 전체성을 중시하고 도시 시설 건설과 목화미화관 건설의 깊은 융합을 견지하며 '복색망'으로 현대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길목화미화' 행동에서 유원광장 12개를 착공했는데 그중 6개 유원지가 이미 건설되어 대외에 개방되고 6개의 끊긴 도로 소통 공사중 4개가 개통됐다. 연변에는 도합 23곳의 소형 공원과 소미복지가 건설되었고 26.6헥타르의 복지 면적이 새로 증가되었다.

로후주택단지의 개조는 백성들의 복지에 관계되며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대중들의 기대에 순응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올해 들어 훈춘시는 로후주택 단지의 개조를 정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낡은' 주택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게 하

여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도 제고되게 했다.

훈춘시 신안가두 진수주택단지에 들어서면 도로가 평탄하고 환경이 정결하며 복도 벽면이 새롭게 칠해져있고 꽃과 나무가 들쭉날쭉하면서도 운치있게 자라고 있다. "예전에는 울퉁불퉁한 흙길이라서 봄과 가을에 바람만 불면 온통 먼지가 흩날렸고 여름과 겨울에 비나 눈이 오면 질퍽거리기로 말이 아니었다. 지금은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동네 마실을 다니기 매우 편리해졌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토매리류신생은 현재 주택단지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훈춘시주택건설국 로후주택단지개혁공실 사업인원은 "진수주택단지 1982년에 건설했는데 오래동안 보수하지 않은 탓에 주택이 낡아 옥상에 물이 새고 하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선로가 노후화되는 등 문제가 존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이 단지는 2021년에 로후단지 개조 작업을 시작하여 단지내 도로를 개축하고 건물 벽면, 가스, 급수, 난방관망, 비물과 오수 관망을 개조하고 공터에 레저 소형 광장을 건설했으며 각종 녹색식물, 경관나무를 추가로 심었다. 개조후의 단지는 면모가 일신되었다." 라고 말했다.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인 공정이며 더우기는 민심공정이다. 아름다운 향촌 시범인인 화룡시 투도진 광신촌의 오수처리시설 건설대상 현장에는 기계가 굉음을 내고 운수

차량이 드나들면서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명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총 565 만원을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도합 2,800 메터의 오수관선을 새로 부설하고 80 개의 검사정(检查井)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280 평방미터의 오수수집못(收集池) 1 개를 새로 건설했다. 일부 관선은 4,984 평방미터의 도로 철거 회복과 관련된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농촌 생활오수를 효과적으로 수집 처리하여 수체 오염을 뚜렷이 낮추고 촌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중종 건설현장에 가서 시공 진척을 료해한다는 광신촌 촌민 왕계연은 "이전에는 생활오수를 마음대로 밖에 쏟아 버리다 보니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길이 얼어 위생적이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밖에서 오수를 부을 일이 없고 도시 못지 않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기뻐했다.

벽돌이나 기타 한강도 민생에 관계되고 길과 다리도 백성들의 리익에 관계된다. 연변에서는 도시건설 강도를 부단히 높여 도시의 기능이 부단히 완벽해지고 품질이 부단히 제고되도록 추진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 준위(能级)를 구축하여 도시의 산과 물이 활기차게 넘쳐나고 도시와 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품위 있고 더욱 질감이 있게 하고 있다.

국가 권위부문, 새로운 부동산 세금우대정책 발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 농촌개발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택 거래에 대한 부분 계약세 우대 강도를 높이고 주민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부가가치세 사전 징수율의 하한선을 낮추고 부동산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데 대해 명확히 했다.

계약세 면에서 1% 저세를 혜택을 받는 현행 면적 기준을 90 평방미터에서 140 평방미터로 높이고 북경, 상해, 광주, 심수 4개 도시에서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정후 전국적으로 면적이 14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 구매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에 대해 계약세를 통일적으로 1%의 세율을 납부한다.

도시 부가가치세 면에서 여러 지역의 도시 부가가치세 사전징수율의 하한선을 통일적으로 0.5% 인하

한다.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실제로 집행하는 사전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택 및 비일반주택 기준과 연계된 부가가치세 및 토지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고 중고주택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부동산기업의 안정적인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면에서 도시 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한 후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북경, 상해, 광주, 심수 4개 도시에서는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비일반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상응하게 중단된다.

도시 부가가치세 면에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이 폐지된 도시에서는 납세자가 매출 부가가치세 통제 항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표준주택을 건조, 판매할 경우 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시행한다.

/ 인민넷 - 조문판

우리 성, 로인우대증 신분증으로 대체

최근, 길림성민정청에 따르면 로인들의 증서 발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민정청(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로인우대증(老年人优待证)>을 더는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전 성 범위에서 '로인우대증'을 더는 취급하지 않고 신분증을 더는 취급하지 않고 신분증을 로인우대증으로 향수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로 삼기로 결정했다.

전 성 60세 이상 로인들은 주민신분증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길림성로인권익보장조례>, <길림성로인우대규정> 및 각급 지방정부가 규정한 로인우

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성민정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로령화 문제가 날로 두드러짐에 따라 로인우대정책은 점차 사회각계의 관심사로 되었다. 실제로 '로인우대증'을 취급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로인들에게 적지 않은 곤혹을 가져다 주었고 일부 불법분자들도 이 고리를 악용하여 불법활동을 하여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다. 성민정청의 이 조치는 사무 절차가 간소화하고 봉사 효율을 제고하여 로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길림일보

연변, 가을걷이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현재 연변에서는 가을걷이 임무의 90.83%를 완성한 가운데 벼과 콩 수확은 전부 마무리되고 옥수수 수확은 84.67%를 완성해 가을걷이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연변의 알곡작물 파종면적은 585.01 만무이다. 순조로운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주농업농촌국은 '일주일제 두번 조물'의 가을수확진도 사업기제를 가동하고 부문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작업지 도면을 파견하여 농가에서 '비탈밭을 먼저 수확하고 평지를 다음에 수확'하는 과학적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콩과 벼를 수확하고 옥수수는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게 했으며 과학적인 알곡 저장 기술 보급 봉사를 전개하여 농호들이 수확한 곡물을 다른 곳에 두어 환기하고 립체적으로 저장하며 제때에 말리도록 지도했다.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높은 추수기간 주농업농촌국은 집합검사 강도를 더욱 높이고 경찰과의 련동감시를 강화하며 중점구역과 도로 구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업용 차량의 불법 탑재, 과속, 피로운전,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연변일보

제 2 회 중국 (길림) 애니메이션대회 장춘서 개막

11월 14일 오전, 제 2회 중국(길림) 애니메이션대회가 장춘에서 개막되었다. 대회는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 길림성당위 선전부, 길림성문학 예술계연합회에서 지도하고 중국텔레비전예술가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길림애니메이션학회, 중국텔레비전예술가협회 애니메이션예술위원회, 길림성라디오텔레비전방송예술가협회, 길림길동전방영화제작주식유한회사, 길림길동우석영화미디어주식유한회사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맛진 애니메이션, 신질미래(精彩动漫, 新质未来)'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애니메이션예술 창작자, 종사자,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중국 애니메이션예술 발전의 참신한 성과를 함께 목격하고 중국 애니메이션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공헌했다. 길림성정부, 중국텔레비전예술가협회의 관련 지도자가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제 2회 중국(길림) 애니메이션대회 가동식을 거행했다.

대회는 전국 각지의 문학예술계연합회, 텔레비전예술가협회, 영화·텔레비

존 제작기구, 애니메이션회사, 대학교, 독립창작자 등 기구와 개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각종 애니메이션 작품과 논문 400여편을 공모했다.

대회 기간에 개막식, 우수 애니메이션 작품 소개, 혁신부화 투자유치 설명회, 학술연구토론회, 예술가 교정 방문, 우수 애니메이션 작품 전람, 전시공연, '현란한 애니메이션의 밤(炫动漫之夜)' 야회 등 주제 행사를 펼쳤는데 도합 70여개의 성내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관광 기업과 16개 련맹 대학교단위가 참여했다.

대회는 애니메이션예술의 우수한 작품, 최신 성과, 그리고 포인트와 특색에 대한 총화 전시를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전망과 미래 추세를 연구 탐색하고 깊이 교류협력하여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새로운 기여를 했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2024 애니메이션 고품질 발전 연구토론회에서는 '전승과 혁신의 교향-애니메이션 시장의 새로운 봄 불러일으키자(传承与创新交响, 呼唤动画市场新春天)'

创新的交响—激发动漫市场新春天')를 주제로 둘러싸고 북경영화학원, 텐센트영상 애니메이션내용제작부 유로파(欧罗巴) 작업실, 북경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애니메이션채널중심, 북경카카(卡酷)미디어회사, 길림애니메이션학회, 중국신문출판연구원 디지털출판연구소 등 단위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각각 고품질의 기초발언을 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사상적 계발을 가져다주었다.

원탁대회에서 중앙민족대학 신문학원, 북경아이치이(爱奇艺) 과학기술유한회사, 항주유노(友诺) 애니메이션유한회사, 길림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영화채널, 산서미디어학원 애니메이션및디지털예술학원 등 단위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과학기술과 예술의 대화-함께 애니메이션의 신질미래를 창조하자>를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업계의 신질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양(纹样) 디지털화 운영 및 산업 전환 경험교류회'는 우리 성의 무형문화유산, 애니메이션, 디지털화 기업들이 소주시의 문양 디지털화 운

영 및 산업 전환의 성공 경험을 학습하고 참고하는 교류와 협력의 교량을 구축했다.

최근년간 길림성 당위와 정부에서 문화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애니메이션 산업기지, 공간기업, 기술팀을 지속적으로 육성, 건설한 데서 전 성 애니메이션업계는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졌으며 많은 우수한 애니메이션 기업과 대표작들이 배출되었다. 대회 기간, 길림성에서는 전사회를 대상으로 <길림성 애니메이션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는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길림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발전 경로를 제시했으며 애니메이션기업의 발전, 장대 추진, 원작성 애니메이션 작품 부화 추진, 애니메이션산업단지 건설 가속화, 애니메이션 핵심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 면에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전 성 애니메이션산업 혁신 발전의 가속화에 다원화 선택과 광활한 기회를 제공했다.

/ 정현관 소년방 기자

가요 달빛사랑

작사: 최어금 작곡: 우영일 노래: 김선희